

HRD
1월의 이슈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대책 발표
- '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도입



코로나19 집합 제한·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7% → 90% 상향 지원



코로나19 특별 훈련수당

월 **11.6만 원** → 월 **30만 원** 상향



2020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인증기관

76 개소 인증



11월 전체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27.3 만명 감소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한다.**

- 레스 브라운 -

통권 제58호
 발행일 2021년 1월 11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052-714-8322
 구독신청 및 문의 1999sss@hrdkorea.or.kr



cover story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시된다. 청년들이 경력형성과 동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와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청년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전한다.

정책 NOW

- 04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
- 06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08 고용노동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발표

현장 NOW

- 10 고용노동부,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11 고용노동부, '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도입
- 11 2020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인증기관 76개소 인증
- 12 고용노동부, 2020 기능한국인 수기집 발간 기념식 개최
- 13 고용노동부·교육부(·사)기능한국인회 미래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3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4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새로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콘텐츠 제공
- 15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 16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16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재택근무시스템 선도적 도입

고용 BRIEF

- 18 2020년 11월 고용동향

연구 ISSUES

- 20 경험학습인증 제도 연구: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20 노동패널자료 연구(VI):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21 숙련기술전수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 21 '20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기관 PLAN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NOW 1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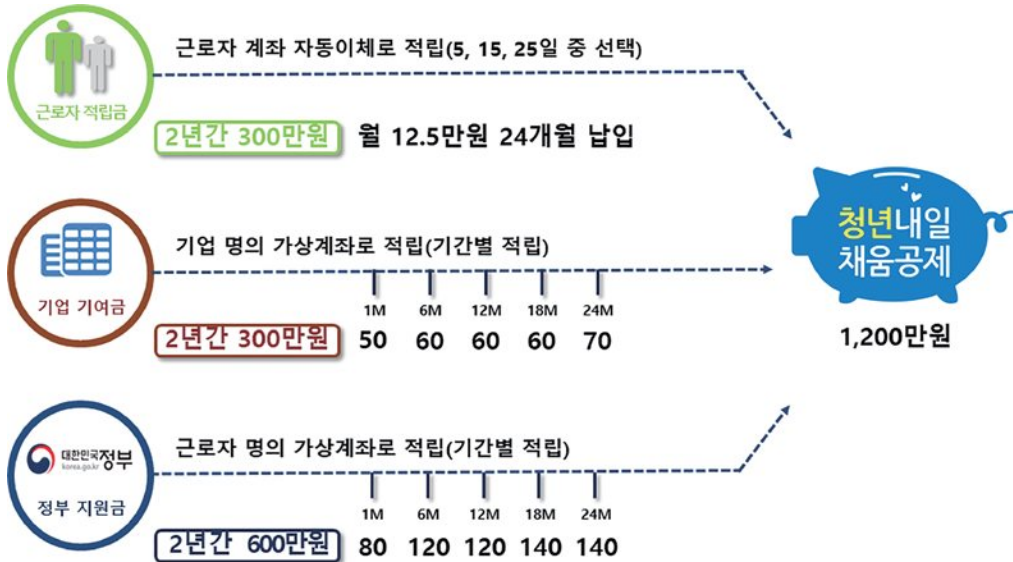
● 사업 개시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경력형성과 목돈 마련 지원

2021년 1월 4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2021년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 개선

- 1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 * 기존 육아휴직, 군 복무 등은 해당 기간, 일반 휴업은 6개월 이내 가능
- 2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 * 현재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
 - ➔ 개편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 3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하여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21년 해당기업 ➔ '22년 제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보도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

- *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
- *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 (재학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업제외)
- * 기업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단,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그간 성과

■ 청년공제는 누적 총 387,568명의 청년과 9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6~2020년 12월)했다.

◇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고

* 1년 근속 중기 재직청년 49.7%, 공제 가입청년 80.1%(30.4%p ↑)<고용보험DB>

* 2년 근속 중기 재직청년 31.0%, 공제 가입청년 64.0%(33.0%p ↑)<고용보험DB>

◇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 형성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 경로 조사('19년 노동연구원)

1년 근속		2년 근속		만기금 수령 후 보수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 청년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 청년	
49.7%	80.1%	31.0%	64.0%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청년 88.1%
	↓ 30.4%p 높음		↓ 33.0%p 높음	

◇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공제 지원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 유치 및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초기경력 형성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견이다.

장근섭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 “청년공제에 참여한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하여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보호·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등

2020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보도자료



그간의 성과

◇ 그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해왔다.

* **제도개선**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
제도신설 무급휴직 신속지원,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고용유지비용 대부

그 결과 12월 10일 현재 7만 1천여개 기업의 76만 명(연인원 217만 명)에 대하여 2조 1천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고용유지지원제도 지원 현황(12.10.)]

-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296개 기업의 근로자 2만 7천 명 고용유지협약 체결
- 무급휴직(휴업) 지원금: 123개 기업의 근로자 1만 2천여 명(연인원 3만 1천 명) 지원
- 고용유지비용 대부: 2,530개 기업에 269억 원 지원
- 유급휴가훈련: 24,632명 훈련 참여('20.1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20% 증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에 인하여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하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선정, 고용유지 관련 지원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고용유지를 실시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50~67%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은 67~90% 지원)



1 사각지대 최소화(파견·용역 근로자 지원 강화)<시행령 제19조제4항>

◇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자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감원방지 기간(1개월)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 연장<시행령 제20조제2항>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에는 3일의 사후신고 기한이 충분하지 않아, 집합금지명령과 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 등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3 무급휴직지원금 활용도 제고<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3호>**① 1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허용**

◇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나,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유효기간을 2022.12.31.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②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前)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했다.

4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 변경<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전년('20년)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5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 변경<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사업주들의 행정부담 완화, 지원금 신속지원을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6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악용 방지<시행령 제19조제1항, 제3항>

◇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채용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제도 악용의 우려가 있어,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정책NOW 3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발표**

**특고·프리랜서 대상 50~100만 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
50만 원 지급**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월 30만 원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지급

202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선제적인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청·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되어 12.29.(화) 발표되었다.

* 정부 전체 약 9조 원 규모 중 고용노동부 소관은 약 2조 408억 원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관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월 15일 까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 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원한다.

* ①'19년 연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2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소관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를 비롯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다.

*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 배제)

3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소관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집행기관: 자치단체)

◇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내년 1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 1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4 생활안정자금 융자(소관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특고,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해 연 1.5%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21년 기준 월 266만 원)

** 대상 근로자, 전체 특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보도자료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1 집합 제한·금지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한시 상향(67 → 90%)(소관부서: 고용정책총괄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 집합 제한·금지 업종 사업주가 경영 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수당 등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특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20.11.24.부터 '21.3.31.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한다.

* 고용상황, 근로조건 등 경영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67 → 90%로 상향, 대규모 기업은 50 → 67%로 상향

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 → 270일)(소관부서: 고용정책총괄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전시('20.3.16.~'21.3.31.), 항공지사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20.4.27.~'21.3.31.)

◇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 지원기간을 3개월 간 연장하고 월 50만 원(총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아울러, 무급휴직 기간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매월 30만 원(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추가 지급하여 휴직기간 중에 직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고용안정 협약지원금) 1년 연장(소관부서: 노사협력정책과 / 집행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간 임금감소 합의 시,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 말까지 계속 시행한다.

* 근로자 임금감소분의 50%, 월 50만 원 한도로 최대 6개월 간 지원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1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30만 원으로 상향(소관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 실업자(고3학생 제외), 무급휴직자(무급휴직지원금 180일 수급완료자 중 90일 연장 지원 중인 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이들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현행 월 11.6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소관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고, 폐업·휴업 중인 자영업자가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거주 훈련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받을 수 있고, 대부한도도 월 300만 원(1인당 총 3,000만 원)으로 두텁게 지원받는다.

* 연리1.0%(신용보증료 1% 별도), 최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3 직접일자리 104만 명,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7만 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1.25만 명 신속 채용(직접일자리 등 - 소관부서: 일자리정책평가과 / 집행기관: 일자리사업별 상이)(청년 디지털 일자리 - 소관부서: 공정채용기반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 민간의 채용여력 위축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 참여 목표인원 104만 명 중 50만 명을 1월 이내에 조기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7만 명도 1월에 바로 채용을 시작할 예정이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인원 5만 명 중 1.25만 명을 1분기 중에 채용 완료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현장NOW 1

● 고용노동부,
●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020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1일(금)부터 12월 15일(화)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안)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액(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관련

◇ 심의회는 '20.12.31.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군산,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재연장(~'21.12.31.)하기로 결정했다.

* 고용위기지역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2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 심의회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①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및 ②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안도 최종 확정했다. 심의회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을 위한 연령 요건을 69세까지 확대하면서, 소득 요건도 일부 완화하는 등 별도로 적용*하도록 했다.

* 예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평균소득 250만 원 또는 월 평균매출 1,250만 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 →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
▲청년(18세 ~ 34세) →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가능 등

◇ 다음으로, 심의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요건 등도 최종 확정했다. 구직촉진수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내용*, 해외 유사제도의 지급수준 등을 참고하여 월 50만 원으로 확정했다.

* (참고 '19.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내용)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로 한다."

◇ 취업성공수당은 총 150만 원으로 하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등 분할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라고 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보도자료



현장NOW 2

● 고용노동부, '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도입

2020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와 급속한 기술변화 등으로 늘어나는 고령 이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연초 공모를 통해 선정될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통해 실시된다.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에 대한 연수 실시 및 최근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 여행업종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특화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보도자료



* 재취업지원서비스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진로상담, 취업알선, 창업 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여 이직 후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4.5억 원, 9개 업·직종

▲ 업·직종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예시: 항공업, 여행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제공
 38억 원, 450개소

<기본컨설팅(400개소)>

- ▲ 의무화제도 이해, 도입전략
- ▲ 서비스 직접, 위탁 운영방안
- ▲ 서비스 제공 후 성과평가 방안 등

<전문컨설팅(50개소)>

- ▲ 서비스 유형별 도입전략
- ▲ 담당인력 역량강화 방안
- ▲ 정부지원제도 활용방안 등



기업 담당자 교육
 4.9억 원, 1천 명

▲ 기업의 서비스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 입문과정, 심화과정으로 편성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유럽연합(EU) 국가나 일본 등은 기술변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이직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기술변화에 따른 업종전환 등으로 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취업의 애로가 있는 고령자부터 정부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NOW 3

● 2020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① 인증기관 76개소 인증

2020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8년부터 도입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역량을 갖춘 기관을 검증하여 구인·구직자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 상담사 등의 인사·노무 전문가들이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1단계), 기관경영과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물적자원관리,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2단계) 등을 현장에서 직접 평가한다. 올해에는 신청기관 92개소 중 인증평가심의회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6개소를 인증했다.

예년과 달리 전년도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신규기관* 비율이 대폭 상승했는데('19년: 4.3% ➡ '20년 34.2%),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은 품질인증마크를 3년간(신규기관은 1년) 사용할 수 있고,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내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민간 위탁기관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면서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인증기관 76개소
 보도자료



* 신규기관비율 '19년 4.3%(10개소/234개소) ➡ '20년 34.2%(26개소/76개소)

현장NOW 4

● 고용노동부, 2020 기능한국인
 ② 수기집 발간 기념식 개최

2020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12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0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다, 기능한국인」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표창하고 있으며, 수상자들이 성공의 길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사연들을 해마다 수기집으로 엮어내고 있다. 올해 발간된 수기집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다, 기능한국인」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된 기능한국인 12명의 ‘성공의 지혜’를 포함한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자(10~12월)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10월 기능한국인

임상홍
 (주)영남테크놀로지
 대표이사



11월 기능한국인

안효주
 (주)스시효외식산업개발
 대표이사



12월 기능한국인

김종연
 (주)메인텍
 대표이사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능한국인들의 성공 이야기들을 후배 숙련기술인을 비롯한 국민들을 위해 수기집에 담아낸 것에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면서, “기능한국인들은 실력만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력중심사회의 롤 모델”이라며, “정부도 기술강국의 위상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우리 숙련기술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기술 전수 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다, 기능한국인」은 전국 특성화 고교, 공공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우수 숙련기술인 관련 누리집 ‘마이스터넷(meister.hrdkorea.or.kr)’ 과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20 기능한국인
 수기집 발간 기념식
 보도자료



* 「이달의 기능한국인」 주로 직업계고 출신으로 산업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2020년 12월 말 기준 166명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및 홍상패 등 수여

현장NOW 5

● 고용노동부·교육부(·사)기능한국인회
 ① 미래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교육부(·사)기능한국인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기능한국인회*(회장 배명직)는 12월 24일(목) 가든호텔(서울시 마포구)에서 미래 기능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졸 청년 기술인재들의 취업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미래 기능한국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협약기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술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풀 인증·제공, 교육프로그램 마련·지원 등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확산하기로 했다.

(사)기능한국인회는 미래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해 숙련기술전수, 장학금 지급, 우수 취업처를 발굴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채용 수요를 바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우수기업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교육부(·사)기능한국인회
 미래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도자료



* 기능한국인회 직업계고 등을 졸업하고 선취업·후창업한 숙련기술보유자로 고용노동부가 매월 1명씩 선정 ('20.12월 현재 총 166명 선정)

현장NOW 6

●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16개 광역 지자체(제주도 제외)는 12월 30일(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별 역할과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가부는 '21년 총 110개의 새일센터(전체 158개 중 약 70%)에서 연간 19천 명 내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 중 47개 센터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전담해 여성 참여자에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자체는 '21년 총 121개의 일자리센터(전체 232개 중 약 52%)에서 연간 10천 명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수요조사 결과, 광역 지자체는 16개소에서 3,500명, 기초 지자체는 105개소에서 6,56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고용부는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새일 및 일자리센터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협업체계를 총괄하고, 각 기관에 대한 인프라 및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목표 공시제」 평가 시 연계·협업 노력도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 일자리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고용복지 + 센터 내 업무공간 등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도자료



현장NOW 7

●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 새로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콘텐츠 제공

2020년 12월 13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수요 등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새로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콘텐츠를 1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1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기존 대면 훈련상담 외에 「온라인 진단·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대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으나, 이제는 고용센터 방문 없이 직업훈련포털(HRD-Net)과 모바일로 「온라인 진단·상담」이 가능해져 민원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 ◇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생이며,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더라도 훈련생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온라인 진단·상담」에 참여할 수가 있다.
- ◇ 훈련과정 전과정(카드발급 → 진단·상담 → 훈련참여 → 평가)에 언제든지 손쉽게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접근 가능하며, 개인 정보분석 및 역량진단을 통해 훈련생 본인의 훈련목적, 역량 수준에 맞는 적합한 훈련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다.

2 모바일을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의 가짓수가 늘어났다.

- ◇ 기존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만 가능했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과 훈련과정 수강신청이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 ◇ 이번에 새롭게 서비스되는 「온라인 진단·상담」 시스템도 모바일로 접속하여 실행할 수 있어 훈련생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3 직업훈련포털(HRD-Net) 누리집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면 개편하였다.

- ◇ ‘청년/구직자/재직자/중장년/여성’에 맞는 생애 단계별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청년’ 화면 → 훈련과정 검색 → 청년이 많이 참여하는 훈련과정 검색**

- ◇ 최근 관심받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과 우수훈련과정을 한눈에 보이도록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을 전면 개선하였다.
- ◇ ‘훈련기관/훈련과정’에서 벗어나, 핵심어 검색 등 다양한 조건*으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도 강화하였다.

*** 개선된 검색조건 ▲핵심어 검색(전체, 훈련과정, 훈련기관) ▲주말여부 ▲주·야구분 ▲자비부담금 유무 ▲140시간 여부 ▲우수과정 여부 등**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직업훈련포털(HRD-Net) 개편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최근 비대면 서비스 추세에 맞춰 훈련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디지털 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훈련생이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평생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새로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콘텐츠 보도자료



직업훈련포털(HRD-Net)이란?

* 구직자·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포털로 훈련기관·훈련과정·훈련비 등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www.hrd.go.kr)

* 200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누적 회원 수 1,200만 명, 일평균 40만 명 방문

●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2020년 12월 23일,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정부는 12월 23일(수) 오후 4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도 도입규모

◇ '21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2천 명으로 결정하였다.

* 도입규모(천 명) ('16) 58 → ('17) 56 → ('18) 56 → ('19) 56 → ('20) 56 → ('21) 52

'21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구분	총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계(명)	52,000	37,700	6,400	3,000	1,800	100	3,000

2 코로나19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도입 애로와 금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아직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규모 (약 3만 명)를 고려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2만 2천 명분의 고용허가서를 우선 발급하고, 나머지 3만 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력도입 추이, 하반기 경기·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외국인고용법 개정)할 예정이다.

* **현행** 3년(기본) + 2년(재입국시) 외 취업활동기간 연장 근거규정 없음
→ **개선** 감염병 확산 등 상황에서 취업활동기간 예외적 연장 근거규정 마련

◇ 국가별 외국인력도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후 1년 이상 대기한 사업주의 경우 16개 송출국 중 타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현행** 기존허가 취소 + 내국인 구인노력 + 허가서 발급 신청 → **개선** 허가서 재발급 신청

3 업종별·대상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및 보호 강화

◇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국내 이공계 학부(4년제)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운영방안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운영방안도 논의하였다.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 취업 및 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한 송출국을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자가격리 중 1일 모니터링 및 온라인 취업교육 실시 등 입국 전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보도자료



현장NOW 9

●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환경분야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2020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하여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환경분야 직무 2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2021년 사회공헌 사업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161억 원 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린 분야

- 신재생에너지차 정비원
- 대기환경 시험원
- 나무의사



디지털 분야

- 스마트공장 운영자
- SW품질테스트
- 스마트복지케어안내사



기타 분야

- 반려동물 미용사
- 방역모니터링 요원
- 장례지도사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내실화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현장NOW 10

● 한국산업인력공단,
 ● 콜센터 재택근무시스템 선도적 도입

2020년 1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오는 2021년부터 콜센터 재택시스템을 도입하고 12월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과 비대면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콜센터 재택근무시스템을 통해 고객상담사는 본인 집에서 공단 대표전화(1644-8000, 8100) 상담이 가능해졌다.

2013년부터 가상화 업무 피시(PC) 시스템을 구축해 사무실 밖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0년 3월 이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원활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공단 대표 전화상담 응대품질 향상을 위해 콜센터 상담사의 약 40%가 동시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콜센터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상담사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보도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재택근무
 시스템 선도적 도입 보도자료



비디모건

온라인 진단·상담 서비스 제공



누가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자도 역량진단 및
훈련상담을 희망할 경우 진단·상담 실시 가능

언제

✓ **훈련과정 소과정* 언제든지
진단·상담 가능**

* 카드발급 » 진단·상담 » 직업훈련 » 평가

어떻게

✓ **개인 프로파일링,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합 훈련과정 안내**



01. 개인별 프로파일링

훈련희망자 개인의 훈련 목적 확인을 통해 유형 분류

* 유형 : ①취업진입형 ②자격취득형 ③역량강화형 ④직무전환형

02. 훈련 역량진단

훈련희망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훈련
참여 가능 여부 확인

* 훈련과정 수강 가능성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03. 훈련과정 추천

훈련 목적 등 프로파일링 결과, 희망 분야를
기반으로 적합 훈련정보 제공

* 희망 훈련과정과 적합훈련 과정을 추천·비교하여 안내

04. 심층상담

훈련희망자가 결정한 훈련과정이 생애 전반의
경력계획에 따라 생애 능력 개발에 적합한 훈련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심층상담 제공

2020년 11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0

주요결과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세는 9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진 모습
-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유지와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피해 계층 지원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음

2020년 11월
고용동향



취업자 및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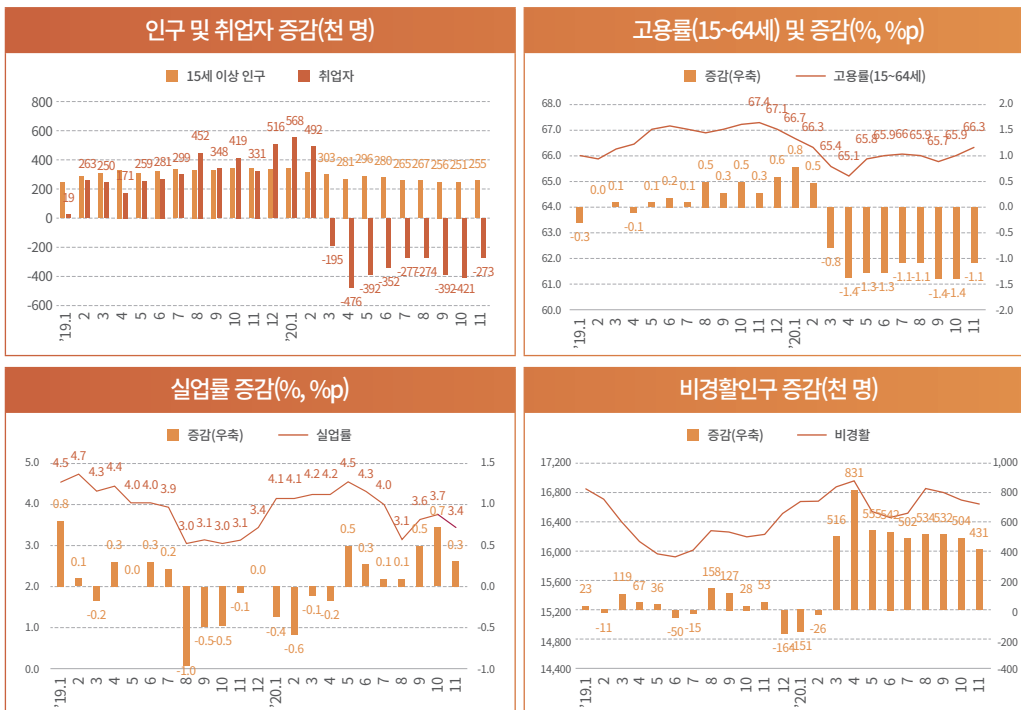
11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3만 명 감소

* 취업자수('19.11 → '20.11, 만 명): 2,751.5 → 2,724.1<△27.3만 명>

◇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1.0%p), 15~64세(△1.1%p)에서 모두 하락, 경찰률(△0.8%p)도 하락

* 15세이상 고용률('19.11 → '20.11, %): 61.7 → 60.7<△1.0%p> / 15~64세 고용률('19.11 → '20.11, %): 67.4 → 66.3<△1.1%p>

* 경제활동참가율('19.11 → '20.11, %): 63.6 → 62.8<△0.8%p>



◇ 서비스업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제조업 감소폭이 소폭 확대되고, 건설업은 증가폭 확대

- 서비스업은 9월 하순 이후의 코로나19 완화 영향이 반영되며,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폭 축소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7)△24.0 (8)△21.5 (9)△38.2 (10)△38.3 (11)△26.6

- 재정일자리 사업 등 영향으로 공공행정·보건복지업 증가폭 확대

*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7)1.1 (8)5.5 (9)10.6 (10)12.3 (11)15.2

* 보건복지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7)16.1 (8)16.0 (9)13.5 (10)10.5 (11)11.4

- 수출 등 관련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 수출(% , 전년비): ('20.5)△23.8 (6)△10.9 (7)△7.1 (8)△10.2 (9)7.6 (10)△3.8 (11)4.1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7)△5.3 (8)△5.0 (9)△6.8 (10)△9.8 (11)△11.3

- 건설업은 9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증가폭 확대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7)△2.3 (8)△0.6 (9)5.5 (10)3.7 (11)7.7

중상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유 자영업자 감소세가 축소되는 한편,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소폭 확대

*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 명, 전년비, '20.10 → 11월): (상용)1.4 → 3.8 (임시)△26.1 → △16.2(일용)△5.9 → △4.4 (고용유)△16.8 → △11.5 (고용無)9.0 → 5.5 (무급)△3.7 → △4.5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채용 위축 등 영향으로 청년층·30대 감소폭이 큰 편

* 연령별 취업자 증감(만 명, 전년비 '20.10 → 11월): (청년)△25.0 → △24.3 (30대)△24.0 → △19.4 (40대)△19.2 → △13.5 (50대)△11.4 → △7.4 (60세 이상)37.5 → 37.2

실업자는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 감소폭 축소 등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


* 실업자(만 명): ('20.6)122.8 (7)113.8 (8)86.4 (9)100.0 (10)102.8 (11)96.7

- 증감(전년비, 만 명): ('20.6)9.1 (7)4.1 (8)0.6 (9)11.6 (10)16.4 (11)10.1

11월 일시휴직자는 47.4만 명(+18.9만 명)으로 증가세 유지

* 일시휴직자(만 명): ('20.6)72.9 (7)68.5 (8)84.6 (9)78.9 (10)49.7 (11)47.4

- 증감(전년비, 만 명): ('20.6)36.0 (7)23.9 (8)14.3 (9)41.6 (10)19.0 (11)18.9

 청년(15~29세) 고용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청년인구 감소, 제조업 등 청년고용 비중 높은 업종 둔화,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감소세 유지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7)△19.5 (8)△17.2 (9)△21.8 (10)△25.0 (11)△24.3

 평가 및 대응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가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9·10월보다 감소폭이 축소되며 고용상황은 다소 나아진 모습

- 주요국 선진국과 비교시에도 우리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

* 11월 취업자 증감률(% , 전년비): (한국)△1.0 (독일)△1.3 (일본)△1.4 (영국)△2.6 (미국)△6.0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음

* (11.19)수도권 1.5단계 격상 → (11.24)수도권 2단계 격상 → (12.8)수도권 2.5단계 격상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 일자리 창출·유지와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피해계층 민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음

◇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

* 디지털·그린뉴딜 추진, 고용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연구NOW 1

● **경험학습인증 제도 연구: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년 11월
김안국, 신선미

주요내용

-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일자리 변동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프랑스의 경험학습인증제의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한 기제로서의 경험학습인증 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프랑스 경험학습인증 제도의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고, 운영의 구체적 방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경험학습인증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여타의 프랑스 훈련 제도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는다.

연구NOW 2

● **노동패널자료 연구(VI):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12월
이경희, 김화년, 김바우, 길은선, 이상호

주요내용

- **연구배경** 가계의 경제활동 역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정여건과 소득이동성의 변화를 패널조사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였고, 특히 인구 고령화가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전 가구의 소득이동성과 60세 미만 가구의 소득이동성을 추산함으로써 고령 가구의 소득이동성이 전체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함.

- **연구내용**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 가구의 비중이 낮고,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높은 지역이 가구당 부채도 높고, 원리금 상환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동성과 관련해서는 첫째, 고령가구는 패널조사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분 모든 지역과 소득분위에 걸쳐 소득이동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둘째, 수도권 지역에서 고령 가구에 따른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론되지만, 부채 비율 등은 경제활동 역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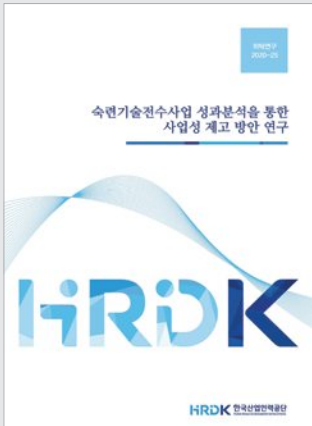
경험학습인증 제도 연구: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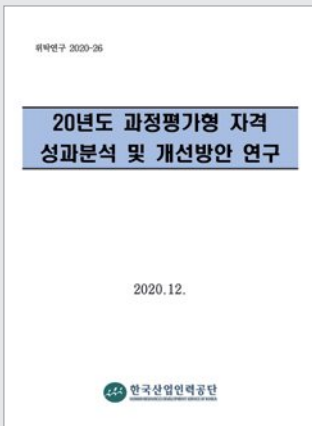
노동패널자료 연구(VI):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숙련기술전수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20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NOW 3

● **숙련기술전수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12월
김상호

주요내용

- **연구배경** 본 연구에서는 전수위원, 직업계고 교사 등으로 구성된 6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숙련기술전수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 및 개선방안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노하우전수, 교강사의 역량과 자질, 교육내용 및 만족도, 교보재, 시설 및 장비, 전수사업 전달 체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며, 동 사업에 대한 훈련수요 확보 및 외연적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 **성과관리 체계 강화** 참여 전수생의 개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참여 독려 방안 강구 필요, 전수생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에, 이수자들의 노동시장 성과 및 전수효과 등을 파악.
- **숙련기술전수기관과의 접근성 개선** 수도권 이남 지방 학교들의 참여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숙련기술전수기관 추가 설립 필요.

연구NOW 4

● **'20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12월
(주)케이엠플러스컨설팅

주요내용

- **연구배경** 2020년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현황 및 동향 분석,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 분석 및 관련 DB 사례분석,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 분석, 과정평가형 자격 개선방안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내용** 과정평가형 자격 개선방안으로는 종목선정 단계에서는 종목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정규 교육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수요 분석 절차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편성기준 개발 단계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과 검정형 자격의 능력단위 유사성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긴 교육훈련기관으로 인한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종목의 기준 교육훈련시간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함.



'20.12.24. 2020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발간 기념식 개최

'20.12.24. 직업계고 학생 장학금 수여 및 업무협약 체결

1.15.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1.19.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5기 입학식

1월 중 '21년 지방 및 민간기능경기대회 신문 공고

1월 중 사업주훈련 우수사례집 및 훈련과정 심사사례집 배포

1.5. 제46회 국제대회 국가대표선수 확정 발표

1월 둘째주 '21년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사업 설명회 개최

1.28. 4대 중점과제 추진성과 발표 및 공유 온라인 세미나 개최

1월 중 직원채용

1월 말 예정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별 일자리 전망 발간

1.5.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카이스트 업무협약

1.7.~1.18. 2021학년도 2년제학위과정 정시모집 원서접수

~2.28. 2020 취업성공스토리 공모전 접수

'20.12.7. 대학 소재·부품·장비 기술전략 자문단 출범식

'20.12.11. 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협의회 총회

'20.12.11.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20.12.28. 한국재정정보원 업무협약식

1.7.~1.11. 2021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1.1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업무협약식

1.27. 2021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11. '21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회 영상 콘텐츠 홈페이지 게시

1.19.~1.25. 제1차 원격훈련과정 정기심사 신청접수

1.22. 2021년 K-디지털 직업훈련 (Platform·Training·Credit) 사업신청

1.22. ('20년 4분기 기준) 심사평가 및 직업훈련 주요통계 발간

1.29. K-Digital-Credit 훈련과정 신청접수

'20.12.1. 제75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세계와 교육세계의 변화'

'20.12.7.~9. 2020학년도 직업계고 학점제 온라인 컨설팅

'20.12.14. 직업계고 학점제 성과 발표회

'20.12.18. 2020년 대학 진로탐색캠프 성과보고회

'20.12.23. 2020년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 포럼

1.27. 진로교육 콘텐츠 온라인 설명회

IT 직무에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 간접노무비

월 최대 180만원 + 1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접수 안내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기업은 4인 이하도 가능

지원요건 | 사업유형에 부합하는 IT직무에 청년(만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4대보험가입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내용 |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 선택